

01 교회소식

메시아닉주들의 축제

국제적인 행사 '2019 이스라엘 찬양 페스티벌'에 우리 교회 예능팀이 초청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02 생명의 말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시리즈

영적인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에 덕이 겸해 있어 반듯하고 위엄이 있으며 절도 있는 행함, 긍휼과 자비의 행함이 나타난다.

03 기획특집

주님은 나의 행복!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발성 난청으로 잃었던 청력이 회복된 강창분 집사와 죽저근막염이 치료되어 잘 걷게 된 심혜영 권사의 간증.

04 간증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갑니다"

주의 복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성결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힘쓰는 몰도바 비탈리 성도와 인도네시아 알헤리토 목사.

만민뉴스

제894호 2019년 6월 23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2019 이스라엘 찬양 페스티벌

만민중앙교회 예능팀 초청, 감동의 공연 선사해



이스라엘 목회자협의회 '크리스탈포럼'과 '홀로코스트 생존자 후원 연맹'이 공동 주최한 '2019 이스라엘 찬양 페스티벌'이 이스라엘의 하이파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지난 6월 8일(토) 오후 6시(현지 시간)에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사진 6).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오순절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이스라엘 개신교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재록 목사 초청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개최 10주년'이라는 의미가 더해져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었다.

이스라엘 전역 메시아니즘(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유대인)들은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콩고, 가나 등에서 참석한 국제적인 행사로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방송되었다.

하이파 마리나 부시장, 주 이스라엘 벨로루시 안드레 사돔스키 대사 등이 참석해 인사말을 담당했으며, 우리 교회 교역자회 회장 이수진 목사는 축하 영상을 통해 "크리스탈포럼과 홀로코스트 생존자 후원 연맹의 활발한 사역에 감사하며, 매

년 찬양 페스티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최 측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어 홀로코스트 생존자 후원 연맹 회장 안드레 가지로우스키 박사와 영광의 왕교회 담임 다니엘 마짜쉬 목사의 환영 사(사진 1, 2)가 마쳐진 뒤, 이스라엘 유명 복음가수 조슈아 아론을 비롯 각 교회 솔리스트들과 이스라엘 댄스 그룹, 영광의 왕교회팀, 나사렛 생영교회팀, 인도팀 등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다(사진 3, 7).

우리 교회에서는 예능위원회 소속 파워워십팀과 정수현 집사, 이은유 자매가 이스라엘 민속무용과 충만한 워십 댄스, 히브리어-러시아어-영어 찬양 등으로 감동을 선사했다(사진 4, 5).

참석자들은 "마치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 같은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행사 후 안드레 가지로우스키 박사는 공연팀을 보내주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스라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만민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만민의 선교 사역이 더욱 활발히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이스라엘 찬양 페스티벌'에 우리 교회 공연팀은 2012년부터 매년 초청받아 영감어린 공연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왔다.

지난 10년간 이 행사를 주최해 온 '크리스탈포럼'은 2007년부터 3년간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며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재록 목사의 사역에 힘을 받은 이스라엘 목회자들이 연합해 결성한 단체이다. '이재록 목사 초청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개최를 시작으로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행 19:11~12), 청소년 캠프, 부부 세미나 등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으며, 홀로코스트 생존자 후원 연맹과 더불어 이스라엘 개신교 부흥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오전(현지 시간), 하이파 영광의 왕교회에서는 이지영 전도사(예능위원회 위원장)를 강사로 집회가 열렸다(사진 8, 9).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14:21)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곧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될 것"을 전했다.

『십자가의 도』, 말레이시아에서 활발한 유통



출판돼 널리 유통되고 있다.

현지 MMP 출판사를 통해 발간된

세계 선교에 힘써 온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대표 설교집 『십자가의 도』 중국어판이 말레이시아에서

이 저서는 화교 교회 내 서점을 위주로 많은 독자층을 형성하며 활발한 유통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MMP 출판사는 깊은 영성을 지닌 이재록 목사가 집필한 『영혼육』,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치료하는 여호와』, 『깨어라 이스라엘』 등의 책자를 중국어 간체로 발간해 꾸준한 판매율을 나타내고 있다.

온유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갈라디아서 5:22~23 -

당회장 이재록 목사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닮아 넓고 온유한 마음을 이룬다면 비록 죄악으로 물든 영혼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므로 더욱 능력을 발휘하여 큰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유의 열매를 온전히 맺고 싶다면, 범사에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선한 쪽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담고만 있느냐, 행함으로 나타내느냐 하는 것은 상대의 입장에서 느낄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덕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상대에게 은혜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1. 온유의 열매란 '덕을 겸비한 영적인 온유함'

사전을 보면 '온유'에 대해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이라고 정의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온유함은 단순히 부드럽고 온화한 것이 아닙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에 덕(德)이 겸해 있어야 하지요. 덕이 있으면 항상 유순하지만 한 것이 아니라 반듯하게 처리해야 할 때는 위엄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온유함'은 지혜가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지만, 악한 감정이 없으므로 모두를 이해하고 품어 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솜털같이 포근해 소리 없이 감싸니 어떤 상대라도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며 감싸 주지요. 이런 사람에게서는 편안함을 느끼므로 많은 사람이 와서 깃들이며 쉬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내면에 온유한 성품이 있다 해도 외면에 덕스러움을 갖추어야 영적인 온유함을 온전히 이뤘다 할 수 있습니다.

덕은 온유함을 빛나게 하는 옷과 같은 것이지만 율법적이거나 외식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음에 성결을 이루지 않고 겉으로만 반듯하게 행한다 해서 덕이 있다 할 수는 없지요. 자칫 겉모습에 치우치다 보면 오히려 자기 발견을 멈추고, 스스로 영적 성장을 이룬 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반듯하게 행동하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좋은 말로 포장해서 권면하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판단하며 자기 틀과 악한 감정 가운데 말하기도 하지요. 또 자기적인 의와 악함 속에서 헐기와 짜증을 내면서 "이것은 의분이다. 상대를 위해서 충고한 것뿐이다"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덕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2. 온유의 열매가 맺힌 사람의 특징

1) 반듯하고 위엄 있으며 절도 있는 행함

분별없이 순하기만 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무시를 당하거나 이용을 당하기 쉽지요. 그러나 온유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내면에 공명정대한 기준을 갖고 있기에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하여 의를 행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정화하실 때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외식을 책망하실 때는 단호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덕과 온유함을 겸비한 사람은 언성을 높이거나 엄하게 하지 않아도 못사람들이 경솔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주의 교양이나 온전한 몸의 행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있어 무익한 말이나 헛된 말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복장도 때와 장소에 적합하게 갖추어 줄 알고 표정도 무뚝뚝하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라 부드럽지요. 모든 것을 반듯하게 하되 동시에 상대의 마음을 배려해 편하게 하는 마음 씬씀이도 갖고 있습니다(롬 15:2 ; 빌 4:8).

2) 마음을 넓게 쓰는 긍휼과 자비의 행함

온유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곤고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아 위로하고 은혜를 입혀 줍니다.

자기 안에 온유함이 있다 해도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자체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핍박 중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향해 안타까워하며 기도해 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는 물론, 기회가 될 때마다 따뜻하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고 상황을 살펴 구제하지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3. 온유의 열매를 맺으려면

1) 길가 밭은 자기 의와 틀을 깨뜨려야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는데 길가 밭, 돌밭, 가시떨기 밭, 옥토로 나눌 수 있습니다(마 13:3~8). 길가 밭은 사람들의 밭에 밟혀 단단해져 씨가 심기지 않으니 뿌리를 내리지 못해 햇볕에 타서 말라 죽거나 새가 와서 먹어 버립니다. 이런 마음 밭을 가진 사람은 강박하고 완고해 진리를 들어도 마음 문을 열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살아오면서 입력한 지식, 가치관 등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이런 의와 틀을 깨뜨리려면 자기 마음의 악을 먼저 깨뜨려야 합니다. 이 악이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발동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롬 8:7).

오랜 세월 동안 비진리로, 악으로 굳어진 길가 밭의 마음은 단기간에 완전히 깨뜨리기는 어렵습니다. 깨뜨리고 깨뜨리기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개간 작업을 해야 하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에 부딪힐 때마다 '과연 내 생각과 지식이 정말 옳은가?' 스스로 궁구해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선한 행함을 쌓아가야 합니다.

2) 돌밭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돌밭에 씨를 뿌리면 썩이 나더라도 돌맹이로 인해 잘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은혜를 받지만 어떤 시험이나 환난, 핍박이 오면 넘어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마음 밭에 박혀 있는 '돌' 때문이지요. 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비진리를 의미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6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돌발의 마음을 개간하여 온유의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가령, 어떤 성도가 “충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맡아 충성해 나가는데 서운함, 험기 등 좋지 않은 감정이 꿈틀꿈틀 올라옵니다. 점점 충만함이 사라지고 사명을 놓고 싶은 마음까지 들지요. 이 사람에게에는 ‘감정’이 바로 마음 밭에서 골라내야 할 ‘돌’인 것입니다. 힘들다고 사명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게 잡아 열심히 감당하면서 온유한 일꾼으로 변화되어야 하지요.

다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비가 내리면 흙이 촉촉해 부드러워지듯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지면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는 도저히 버릴 수 없었던 죄악도 버릴 수 있습니다.

3) 가시떨기 밭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버려야

가시떨기 밭에 씨를 뿌리면 잘 자라다가 가시떨기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가시떨기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믿고 행하기는 하지만 온전하게 행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세상 염려와 재리 곧 재물이나 명예, 권세 등에 대한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가시떨기는 ‘육신의 생각’이며 그 뿌리는 마음의 악, 그리고 육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에 있는 악과 육이 육신의 생각의 근원이라는 말이지요. 아무리 ‘육신

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마음먹어도 마음에 악이 있으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들을 마음에서 뽑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탐심’과 ‘교만’이라는 육의 큰 뿌리를 뽑아내면 마음에서 신속히 육이 버려질 수 있습니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얽매어 세상일을 염려하게 되고, 자신의 유익을 좇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를 동원하고 육신의 생각을 좇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탐심’이라는 뿌리, ‘교만’이라는 뿌리를 신속히 뽑아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4) 옥토는 개간하는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어

옥토는 땅이 고르고 비옥하여 농부가 씨를 뿌리면 싹이 자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는 밭입니다. 이러한 마음 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직 아멘과 예로 순종하기 때문에 매사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을 자로 재듯이 길가 밭과 돌밭, 가시떨기 밭과 옥토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혹 길가 밭에 돌밭과 같은 마음이 섞여 있기도 하고, 옥토와 같은 마음 밭을 가졌다 해도 성장하면서 돌맹이와 같은 비진리가 심어지기도 합니다.

어떠한 밭이든 농부가 부지런히 개간하여 돌맹이를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뽑아내면 옥토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마음 밭을 소유했느냐 하는 것보다 얼마나 부지런히 밭을 개간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쉬지 않고 불같이 기도하며 범사에 하나님 말씀 곧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로 말하며, 진리로 행해 나가려고 애쓰며 끝까지 굳은 의지로 마음을 지켜야 하지요. 이러한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하나하나 명심하여 고쳐 나가므로 분명 주 안에서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는 만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온유함을 이뤄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두는 옥토처럼,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성령의 음성도 밝히 들으며 범사에 형통하게 인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 5:5)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온유함을 이룬 만큼 천국에서 넓은 땅을 받는다는 뜻이지요. 자기 안에 깃들었던 모든 영혼을 초청해 함께할 수 있을 만큼 천국에서 큰 처소를 상급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마음밭을 개간하여 아름다운 온유의 열매를 맺어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발성 난청을 치료받아 이제 소리가 아주 잘 들려요!”

강창분 집사 (57세, 2대대 17교구)



2018년 12월 말, 낮잠을 자다가 전화벨 소리에 깨어 통화를 하려는데 상대방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다. 그뿐 아니라 너무 어지럽고 두통과 구토 증상까지 있어 고통스러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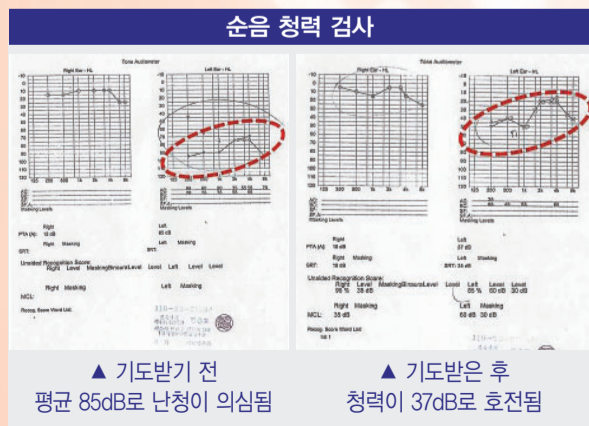
병원 검사 결과, ‘돌발성 난청’이었습니다. 의사는 “지금 청각 장애인이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3~6개월은 지켜보아야 하며 약물 치료를 받아도 정상 청력의 70%밖에 회복이 안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수시로 받았습다. 그리고 교구장님의 심방을 통해 그동안 제 마음에 쌓아왔던 서운함과 불평불만, 사명 감당에 소홀했던 것들을 회개했지요.

2주 정도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다.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더니 청력이 점점 회복되는 것입니다. 1월 25일 금요철야예배 2부 은사집회 시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뒤에는 이전보다 더 밝히 들려 생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지요.

2월 14일, 병원을 찾으니 의사는 제 청력이 빨리 회복되고 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5월 17일,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정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치료해 주신 하나님과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족저근막염을 치료받아 자유롭게 걸으니 행복합니다!”

심혜영 권사 (57세, 구미만민교회)



평소 자고 일어나면 발에 통증이 느껴지곤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말부터는 양쪽 발바닥 전체에 통증이 심해 땅을 디디지 못할 정도였지요. 물론 구두는 신을 수도 없었고, 방바닥에 앉은 채 엉덩이로 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족저근막염’이었습니다. 의사는 발바닥에 전체적으로 염증이 있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때마침 만민중앙교회 근처에 살고 있는 딸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기에 운동화를 신고 만민기도원 오전 환자집회와 낮 기도회, 다니엘절야에 꾸준히 참석하며 기도할 수 있었지요.

그럼에도 2019년 1월부터 시작된 매월 마지막 금요철야예배 2부 은사집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월 26일 은사집회 때에도 ‘또 준비를 제대로 못 했네...’ 하는 생각에 환자를 위한 지정석에 앉기조차 민망했지요.

그런데 이수진 목사님이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전체 환자 기도를 해 주실 때, 그동안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변화되지 못한 제 모습 등이 떠오르면서 회개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 뒤 놀랍게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족저근막염을 치료받아 평소와 같이 잘 걸을 뿐 아니라 구두까지 신고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며, 저의 죄를 대속해 주신 사랑의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결의 복음은 제 삶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비탈리 따바라누 성도 (33세, 몰도바만민교회)



▲ 부모님과 형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선교사(오른쪽)와 함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죄들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너무나 무의미하고 공허한 삶이었기에 제 삶의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삶의 이유와 의미를 깨닫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곤 했지요.

그러던 2010년, 형(알렉산드르 따바라누)이 TBN 러시아 방송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알게 되면서 저도 함께 당회장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는 매우 흥미로웠고, 제가 그동안 갈구했던 진리와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영혼육, 십계명, 사랑장 등 매일 당회장님의 설교를 4~5편씩 듣고 저녁에는 설교 말씀을 요약 정리했지요.

죄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죄를 버려 나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죄를 싸워 버려 나가는 능력이 주어지기 시작했지요. 이렇게 당회장님의 설교는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전에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 기도의 필요성조차 몰랐던 제가 지금은 매일 두 시간 이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잊지요.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

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여름, 저는 한국에 와서 45일간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만민의 사역들과 조직을 배우며, 밤늦은 시간까지 기도하는 성도들과 일꾼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명을 받았지요. 그때 보고 배운 것들을 저희 교회에 적용하니 큰 도움이 되었고, 몰도바뿐 아니라 유럽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비전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만민국제신학교(MIS) 과정을 수료하였고, 몰도바의 다른 도시들과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에도 성결의 복음을 전했으며, 이탈리아의 목회자들과도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몰도바의 수도 키시너우 시와 레지나 시에 세워진 2개의 만민 지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성도들은 당회장님을 통해 기사와 표적을 많이 체험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급성 폐성심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당회장님 기도로 치료받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저 또한 급성 맹장염을 치료받았고, 많은 성도가 백혈병, 결핵, 췌장 등이 치료되었지요.

참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본이 되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만민의 모든 사역의 근간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사역, 특히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9명의 고아들을 포함해 저와 아내는 총 20명이 넘는 아이들을 자식처럼 여기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매우 행복합니다.

알헤리토 아케리나 목사
(46세, 인도네시아 베델교회)



2008년, 저는 ‘2006 뉴욕 연합대성회’ CD를 보고 강사 이재록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민중앙교회에 대해 알면 알수록 성결한 삶을 살고 싶었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싶은 사모함이 커졌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제가 성결한 삶을 살아 말씀을 바르게 전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만민중앙교회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GCN방송으로 참여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 인간의 상식을 뛰어 넘는 응답과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보면서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만민중앙교회에서 일어난 기적이 저희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믿기에 저와 가족은 만민에 대해 배우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도 2018년 10월,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지요. 저는 많은 것을 깨우쳤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케이스와 함께 당회장 이

재록 목사님과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의 사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돌아온 뒤 갑자기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서 취한 손수건을 통해 희한한 능이 나타났으니 저도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기에 대신 당회장님과 원장님의 사진을 손수건 케이스에 넣고 아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지요. 그러자 아이들이 어떤 약도 먹지 않았는데 깨끗이 치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다니엘철야를 통해 만민중앙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본받아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만민의 모든 사역의 근간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만민을 통해 받은 은혜이지요. 만민, 사랑합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문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민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3430-331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셀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352-8336